

# 수도권, 노후경유차 등 운행제한 중복 논란

### LEZ·비상저감조치·녹색교통지역에 계절관리제 시행 예정 경기, 계절관리 외 기간 LEZ 시행 제안...환경부, 장기 통합 검토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상시운행제한(LEZ), 비상저감조치 등 각종 자동차 운행제한제도가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시운행제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등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과태료가 중복되면서 동일 차량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 등 28개시에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제도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5등급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차 등에 대해 1회 경고 뒤 2회부터 20만원의 과태료(월 1회)가 부과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전국) 위반 차량(5등급)에 대해 10만원 이하 과태료(1일 1회), 서울 4대문 안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1일 1회)가 각각 매겨진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12~2월)가 시행되면 위반 차량(5등급)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3월내 계절관리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뒤 오는 12월쯤 계절관리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4가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동일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도는 특히 계절관리제와 상시운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될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를 뒤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제한제도의 과태료 중복해소를 위해 기존 상시운행제한(LEZ) 단속대상을 5등급 차량으로 일원화

하고, 계절관리 기간 외 시기(4~11월)에만 LEZ를 시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1

## 상지대, 수영선수 한동호·고 김수민씨에게 명예졸업증 수여

상지대학교가 대학 설립 최초로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주인공은 한동호씨와 고 김수민씨의 부모다.

2005년 동물생명자원학부 바이오산업공학과에 입학한 한 씨는 한 학기만에 '레버씨 시신경 위축증'이란 질병으로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며 안타깝게도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2010년 수영을 시작해 각종 메달을 휩쓸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 부문 한국신기록 6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0년 제10회 광주우 아시안패러게임, 2016년 제15회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등으로 선발돼 2010년 자유형 50m 부문

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2019년에는 철인3종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019년 11월 그리스에서 열린 아테네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가이드러너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고 김수민씨는 2016년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으나 4학년에 재학 중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투병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재학기간 특허출원,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의 성과를 내는 재원이었으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학과 학술동아리

를 창설하며 학과 발전에 앞장서 활동했다.

다양한 학과활동에 솔선수범하며 늘 선·후배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돋보였다.

부모와 가족들은 2019년 교내에 조성된 동아마루에 고인의 이름으로 벤치기부를 하기도 했다.

한씨는 "학교를 입학한지 15년이 지나서야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매우 영광이다. 국가대표로 대회에 출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고 김수민씨의 아버지 김정오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수민이가 명예졸업을 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지대학교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수민이가 사랑했던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학 총장은 "65년이란 짧은 시간의 상지대 역사에서 첫 번째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한동호씨는 앞으로도 고년에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길 바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멋진 삶을 살았던 수민양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에 재배기술 전수

### 민간사회단체 인적·물적 교류 확대도

지난해 10월 우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충북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은군은 베트남 최북단 산악지대에 있는 하장성과 지난해 10월 우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12월에는 계절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공급받는 인력 교류를 진행한다.

지난 13일에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주한 베트남대사관(대사 우엔 부 뚜)을 방문해 우엔 부 뚜 대사와 본격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보은군의 대추와 사과 선진 재배기술과 축산기술을 베트남 하장성에 전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베트남 대사는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과의 우호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응원했다고 굳은 결정을 내렸다.

산악지대인 베트남 하장성에 버섯재배 기술 전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군은 덧붙였다.

보은군은 군은 물론 지역 민간사회단체와 하장성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할 생각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장성의 카스트 지질공원 축제와 보은대추축제를 비롯한 문화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하장성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이날 교류 방안을 논의한 후 우엔 부 뚜 주한 베트남 대사의 보은 방문을 요청했다.

## 인천 배경 저예산 영화에 제작비 지원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인천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저예산 영화를 발굴해 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영상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편당 최대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독립장편영화가 대상이며 인천을 소재로 하거나 인천 촬영 분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 지원액은 2억3000만원으로 편당 최대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감독 또는 제작사(PD)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이 시작되지 않은 작품에 한한다.

시영상위원회는 추후 서류 및 PT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의 공간과 정서를 담아낸 영화를 발굴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작했다.

지원 방법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영상위원회는 그동안 '갯기왕'(2016년, 감독 백승화), '이장'(2018, 감독 정승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저력과 다양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장'은 제35회 플란도 바르샤바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17개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됐다.



꽃, 행복을 나뉜다. 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꽃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영업점에 방문객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눠주며 꽃시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3만 2천여 송이의 장미를 구입했다.

## 대전시, 미래 먹거리 수소부품산업 허브로 도약한다

###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착공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대전에 들어선다.

대전시는 2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내 신동지구에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 선정된 센터는 민선7기 대전시 약속사업이자 역점추진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국비 105억원 등 총 사업비 28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유성

구 신동지구 연구용지 11-1, 11-2번지 7000㎡의 대지에 수소부품 시험동(2000㎡) △설비동(700㎡) △실증시험설비(18종) 등의 설비를 갖추고 2022년 1월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센터 설치 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연관기업 육성에 필요한 수소 관련 부품·제품의 성능 평가 지원 기반을 타 시도보다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기업들의 수소관련 부품·제품 개발단계에서 테스트베드(Test

Bed) 기능을 지원해 트랙레코드 확보 등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청정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연관 산업육성을 통한 대전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센터 건축과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제품효율평가 설비 △부품성능평가 장비 및 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전북대 얼굴, 26년 만에 한옥으로 바뀐다

전북대학교가 기존 정문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완공된 '한옥 정문'이 새롭게 전북대의 얼굴이 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한옥정문이 완성되면서 기존 정문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왔다.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정문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 결정으로 기존 정문 조형물은 지난 1994년 진일보 개신사업을 통해 지어진 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옥정문과의 불편한 동거도 끝이 나게 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2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한옥정문 건립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기존 정문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왔다.

## 인천시 20쌍에 '스·드·메' 비용 지원

인천시가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20쌍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 20쌍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중 시에 거주하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

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20쌍에게 100만원 상당의 컨설팅·결혼식장 세팅비와 100만원 범위 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지원한다. 단, 고객음식비와 기타비용 등은 제외된다.